

커뮤니티 통역의 전문성 제고 방안

류 현 주
(부산외대)

1. 통역 수요와 교육

2006년 한 사람의 재판이 전 세계에 중계된 일이 있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재판 과정이 이라크어→영어 동시통역으로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된 것이다. 이는 1940년대 중반 누렘베르크 재판에서 처음으로 전문 장비를 통해 몇 개의 다른 외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된 지 60년이 지난 후 다시 법정에서 이루어진 동시통역 현상이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24시간 뉴스 방송의 기원을 만든 CNN 방송은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자료화면을 사용하면서 걸프 전 당시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을 제공한 이후 동시통역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했던 방송이기도 하다.

동시통역 이전에 국제 행사의 전문 통역 수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서서히 확산되어 오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보급되었다. 국제 행사는 비단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와 같은 스포츠 경기 뿐 아니라 경제, IT, 문화 분야에도 확대되어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는 물론 몇 개 국가나 국가간 기구 혹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1세기 들어 한국은 그 동안 축적된 국제행사 경험과 구축된 사회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아시안 게임, 한일 월드컵, 하계 유니버시아드 그리고 작년 부산 APEC 정상 회담까지 대규모 국제 행사를 계속 유치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국제 행사 개최지인 서울은 국제 컨벤션 협회(International Congress & Convention Association)에서 조사한 2005년 국제회의 개최 현황에 따르면 국제회의 유치 건수에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통번역 수요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화 추세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리적 국가 경계가 무너지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급증한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 통번역 석사 학위나 혹은 연계 과정을 통해 통번역 교육을 하는 대학원들이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실용영어 교육 강화와 학생들의 관심 증대로 학부에서도 통번역학과나 복수 전공 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통번역 대학원을 준비하는 입시 학원이 외의 일반 사설 학원에서도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통번역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청취 강좌와 영작문을 개설하고 있다. 심지어 영어 경우에는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되는 영어 교육이 1학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는 정부 발표에 따라 초중등학교 영어 교재와 영어 학원에서까지 ‘동시통역이 가능한 교육’이라든가 ‘통역사의 꿈 실현’이라는 문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통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 다른 통번역 수요 증가의 원인은 컨벤션 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익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찾을 수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었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제 행사가 서울에서 유치되고 있기는 하나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의 컨벤션 센터나 호텔에서도 매우 많은 국제 행사가 연중 내내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에는 행사와 관련된 의전, 업무 연락, 숙박 예약, 관광 안내와 같은 행정 지원부터 본 행사 자체 진행까지 다양한 수준의 통역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대대적으로 광고가 되어 일반인들에게도

1) “ICCA Statistics 2005,” <http://www.iccaworld.org> 참조.

알려지게 되지만 지방 자치 정부와 다양한 정부 기관 및 기업의 통역 수요는 해당 단체나 관계자들만이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통역 시장 전체 수요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공공기관 주최의 행사 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교류를 감안할 때 통역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식 통역 교육은 국제 전문 인력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관광 통역으로 먼저 시작되었다. 한국 관광 공사 주최로 관광 통역사 시험과 자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 부응하여 2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관광 외국어과에서 관광 통역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현재도 관광 종사원 중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세계적 맥락에서 통역 역사를 보더라도 통역 수요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공식적인 국제적 행사 이전에, 통역 수요는 신대륙 탐험, 종교 전파, 피정복 국가 통치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후 통상, 외교 쪽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처음부터 통역은 전문 통역 인력이 수행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현장에서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통역을 담당하였다. 이후 국가간 통상과 외교는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되고, 통역 수요가 필요한 행사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통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전문직으로서 통역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통역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교육 제도와 자격 혹은 그에 상응하는 인증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역의 전문성은 먼저 국제회의 통역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회의 통역과 국제회의 통역을 제외한 나머지 통역으로 양분되고 나아가 전문 통역과 비전문 통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조장되었다. 국제회의 통역을 제외한 모든 통역은 비전문적 통역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통역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 통역 교육 기관과 통역 사용자는 물론 나아가 통역사들에게조차 편견을 심어 주었다.

국제회의 통역과 비국제회의 통역의 양극화는 통역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이 통역의 종류가 곧 통역 수준과 통역 내용 난이도의 고/저로 이해되는 양극화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국제회의가 아닌 행사 통역은 통역 교육을 받지 않고도 외국어 능력만으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역 교육 프로그램이 양산되었고 결국 체계적인 통역 시장 정립에 걸림돌

이 되었다.

통역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통역사의 ‘양산’이 아니라 ‘육성’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회의 통역은 아니지만 전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한 커뮤니티 통역은 시장 주도형, 목적 지향적 교육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 통역의 사례를 통해 통역 전문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 통역 전문과 전문 통역

2.1 통역 전문: 직업 혹은 직종으로서의 통역

통번역에서 전문성을 논할 때는 통·번역사라는 직업이나 직함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통번역은 비록 통번역사란 직함이 아니더라도 통역과 번역 일을 주 업무로 하는 직종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통역만을 전문으로 하는 통역사란 직업의 역사는 오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역의 필요성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다. 즉, 통역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결과물이 자료로 남는 번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녹음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소진되는 통역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문헌 연구와 연륜 있는 통역사들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만든 연구 자료들은 모두 통역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현재 국제연합 UN과 유럽연합 EU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역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 UN은 통번역 전담 부서(the UN General Assembly and Interpretation Management Department)에서 상주 통역사를 고용하고 유럽 통합 움직임에 따라 계속 회원 수가 증가하는 EU에서는 전문 국제회의 통역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컨소시엄 EMCI (European Masters in Conference Interpreting)와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SCIC(Service Commun Interprétation Conférences, European Commission's Joint Interpreting and Conference Service)를 운영하고 있다. 출발어 텍스트를 도착어 텍스트로 옮긴다는 점에서 모든 통역은 동일하지만 출발어 텍스트 기호가 모두 문자로 된 것만은 아니다. 청각 장애우들의 언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기호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해석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수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화 통역에 대해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은 물론 이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일반(언어) 통역과 수화 통역은 매우 상이하므로 일반적인 통역 담론에서는 수화 통역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통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역을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통역 방식으로 순차 통역과 동시통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에 비해서 커뮤니티 통역과 국제회의 구분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두 통역 종류는 통역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논할 때 가장 유효한 구분이 된다. 그 이유는 우선 이 두 통역의 관련 교육 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문 통역사 육성을 위해 교육 목표와 교과목은 물론 취업 및 진로 안내까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 통역과 국제회의 통역은 관련 학위 혹은 관련 자격증 제도가 각각 특성에 맞게 잘 정착되어 있는 대표적 두 전문 통역이라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 통역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회의 통역 프로그램과 필수 통역 전공 과목이 같고 다만 교재 내용이 시장 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과 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커뮤니티 통역은 문장에서 문단까지 길이가 다양할 수 있으나 평균적인 국제회의 통역 분량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국제회의 통역과 같이 기본적으로 순차 통역과 동시통역 두 방식이 모두 사용되지만 순차통역 빈도가 동시통역에 비해 많다.

한편 자격 제도를 살펴보면 국제회의 통역사 자격증 제도는 없으나 통역 대학원의 학위가 공인 자격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국제회의 전문 통역 서비스는 대부분 통역 대학원 졸업생들이 담당하고 있다. 흔히 국제회의 통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컨벤션 산업에서 말하는 컨벤션과 컨퍼런스 기준의 국제회의와는 다르다. 컨벤션 산업에서 말하는 국제 규모 회의는 참가자 수, 참가자 출신 국가 수, 행사 수용 시설을 고려하여 용어를 사용하는데 반해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말할 때 국제회의가 반드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라에서는 외국에서 온 연사 혹은 대표가 있고 우리말 이외의 외국어가 사용되는 행사에 ‘국제’라는 말을 붙여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회의 통역사는 회의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 참가자들이 모이는 비즈니스 미팅, 세미나, 학술대회, 국제기구 회의를 통역한다. 미국 국무성에서는 국제회의에 비해 참가자가 적은 수의 행사 통역을 가리켜 ‘세미나 통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국제회의와 세미나는 행사의 비중과 규모의 차이일 뿐 두 행사 모두 전문 통역사가 필요한 시장 수요이므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2 전문 통역: 시장 수요 기반 커뮤니티 통역

커뮤니티란 용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수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말하고, 특정한 목적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며 사람들의 주거지 중심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일정 구역을 지칭하기도 한다. 통역의 수요는 컨벤션 센터, 호텔 연회장과 같이 화려하게 남의 눈에 쉽게 노출되는 곳보다는 그렇지 않은 개인, 기업, 정부 단체, 각종 학회 및 협회를 비롯한 기타 기관에서 더욱 많이 창출된다.

어떤 측면에서 국제회의 통역이 상업적이라면 커뮤니티 통역은 비상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비상업적이라고 해서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자원봉사 통역은 아니다. 법률·의료 서비스 자체가 자선 행위가 아니듯이 기본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통역을 비상업적이라고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티 통역 서비스 수요로 보면 국가나 사회 혹은 국제기구와 같이 큰 구성체가 아니라 개인적인 서비스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국제회의 통역에 비해 비상업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상업성과 비상업성의 구분은 통역사와 통역 의뢰인의 관계가 아니라 통역 서비스를 받는 측과 의뢰하는 측이 국제회의 혹은 국제 행사에 비해 배경과 인식, 권력과 지식에서 서로 평등하지 않은 관계(Shackman 18)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커뮤니티 통역이 언어 장벽으로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난민, 이민자, 제 3국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통역하는 직업상 특성을 일컫는 것이다.

커뮤니티 통역이란 용어가 비전문 통역으로 국제회의 통역보다 폄하되는 것을 우려하는 학자들은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집단도 ‘커뮤니티’로 간주한다. 이들은 커뮤니티 통역이라는 개념을 기존의 두 가지 분류, 즉 국제회의 통역과 커뮤니티 통역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거나(Gonzalez 28) 혹은 국제회의와 커뮤니티 통역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대안으로 ‘리에종 통역’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있다(Gentile 117-18). 그러나 커뮤니티 통역과 국제회의 통역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자격 제도, 그리고 취업 분야가 분명하게 구분되므로 통역 수준이나 전문성에 대한 편견으로 야기되는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해야겠으나 현실적으로 두 통역 종류는 분명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는 세계화 혹은 국제화란 말이 이제 매우 진부하게 들릴 정도로 국가간 교류가 급격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간 교류란 곧 사람들의 교류이다. 교류란 국가 정상이나 요인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교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과 관광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종교 갈등, 영토 분쟁, 내란, 전쟁으로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난민이 발생하기도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이민을 가거나 취업을 위해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겨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거주하면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모르면 그 국가의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커뮤니티 통역이 등장하게 되었다.

커뮤니티 통역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첫째, 국제회의 통역을 제외한 통역에는 전문 통역 교육이 필요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막고 둘째,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거의 모든 통역 교육이 국제 인력 수급을 목표로 표방하지만 사실상 교육 내용은 그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국제 업무 또는 통역 직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설계함으로써 전반적인 통역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통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통역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기도 했으나 상대적으로 커뮤니티 통역 수요가 없었고 또 커뮤니티 통역 특성상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곳에서 개인적 통역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을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수요가 발생할 때도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 의뢰한 사람에 비해 외국어를 잘하는 이유만으로 일을 담당하게 되고 사용기관이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통역 품질에 대한 공식 평가가 없기 때문에 당일 급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이러한 통역은 자원 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통번역 전담 부서나 기관을 둘 정도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해당 분야 커뮤니티 통역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 전문 통역 교육은 차치하고라도 외국어 능력조차 중급 이상 수준의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커뮤니티 통역은 해당 커뮤니티의 공식 언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법, 의료, 교육을 비롯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커뮤니티 통역은 사전적 의미(Baker 33-37)에서 경찰서, 이민국, 사회 복지 센터, 병원과 보건소, 학교 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들에서 통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통역’(Public Service Interpreting) 혹은 ‘대화 통역’(Dialogue Interpreting)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통역은 서로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중개 통역’(Liaison Interpreting)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몇 개의 문장 단위로 통역을 한다고 하여 ‘문장 통역’(Sentence Interpreting)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모든 통역에 적용되는 것이고 통역 출발어 텍스트 길이는 통역의 상황에 따라 몇 개의 문장 또는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 통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커뮤니티 통역’이란 표현이 가장 많이 통용되는 하나의 전문 통역 개념이 되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지만 커뮤니티 통역은 자원 봉사와는 다르다. 특정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자원 봉사도 단기간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만 커뮤니티 통역은 주로 법정과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 능력은 기본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커뮤니티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 교육을 받고 난 후 자격증 시험을 치르거나 혹은 관련 협회에서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체계적 커뮤니티 통역사 교육 및 관리 체제는 외국인들의 이주가 많은 나

라들에서 우선적으로 마련되었다. 1970년대 커뮤니티 통역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하여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현재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커뮤니티 통역 교육 프로그램 또는 자격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 들어 유럽에서는 유럽 통합의 움직임에 따라 의사소통 문제로 야기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역 도움을 공식화하는 법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2003년 브뤼셀에서 유럽 연합 국가들이 형사 처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와 피고가 통번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녹서를 발표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²⁾ 또한 미국에서도 이민자와 난민들이 많은 국가인 만큼 비영어권 국가에서 온 시민들이 언어 문제로 혜택의 차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권리와 보호법에 의거하여 통번역 서비스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커뮤니티 통역은 국제회의 통역과 같은 전철을 밟았다. 처음 커뮤니티 통역은 해당 분야 전문 통역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요자 혹은 공급자 주변에서 외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투입되는 임시 해결 통역이었다. 그러나 커뮤니티 통역은 1978년 미국에서 법정 통역사 법안이 마련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 후 1995년 캐나다에서 제 1회 커뮤니티 통역 국제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3년마다 한 번씩 이 행사가 열리면서 커뮤니티 통역이 전문 통역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민족, 다문화 배경의 이민자들이 많은 미국은 커뮤니티 통역이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정착된 곳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올해 초 미국 부시 대통령 국정 연설은 원 영어 발표 이외에 인터넷 웹 중계로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 페르시아어, 터키어, 스와힐리어로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미국 워싱턴 주의 한 연구소가 조사한 2002년 연구 결과³⁾에 따르면 통번역 수요는 2007년까지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 Green Paper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Department of Justice and Home Affairs, "Procedural Safeguards for Suspects and Defendants in Criminal Proceedings throughout the European Union," Brussels (Feb.19, 2003), http://ec.europa.eu/justice_home/doc_centre/criminal/procedural/doc_criminal_procedural_en.htm 참조.

3) Marguerite Higgins, "Open to interpretation," *The Washington Times*(June 12, 2005),

있는데 이중 수요의 대부분이 커뮤니티 통역이다. 이 시장의 70% 이상은 프리랜서 통역사가 통역을 하게 되는데 효율적 시장 수급을 위해 통번역 회사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 국가 차원의 단일 통역 자격 제도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가장 먼저 분야별 통역 교육과 자격 제도를 정비한 주로서 다른 주의 모범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시장 중심, 목적 지향 교육 기관이 특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주에는 국제회의 통역사를 교육하는 몬트레이 통번역 대학원과 정식 학위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통역사를 육성하는 샌디에고 통번역 대학원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커뮤니티 통역 자격시험은 미국 국내외 비영리단체들을 위해 인력 개발을 하고 직업 관련 자격 제도를 관장하는 CPS(Cooperative Personnel Services)에서 주관한다. 이 주에서 인정하는 커뮤니티 통역 자격증은 의료, 법정, 심리(審理) 통역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처음 1978년 커뮤니티 통역사 시험은 심리, 의료 서비스 통역을 포함한 단일 시험 제도로 운영하였으나 이후 각 통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을 분리하였다. 1993년에는 의료 분야 통역사 시험을 별도로 실시하고 1994년부터는 법률 서비스 통역에 대해 재판 법정 통역사와 재판 이전 심리 통역사 시험으로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시험 대상 외국어 또한 각 통역 수요를 고려하여 심리와 의료 통역사 시험에는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법정 통역사에는 여기에 아랍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가 추가되어 실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분야에 한해서 통역을 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법정 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심리 통역과 의료 통역 모두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

커뮤니티 통역사 자격시험은 다른 공인 통역시험 과목과 유사하다.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함께 치르고 구두시험에서 구체적으로 통역 업무 능력을 평가한다. 캘리포니아 주 법정 통역사 자격시험에서는 구두시험으로 문장 구역과 통역 시험을 실시하는데 통역 시험에는 동시통역 시험도 포함된다. 필기시험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 평가 지필 고사이고 구두시험은 통역 능력을 보는 것으로 모든 통역 시험은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되어 시험 기간이 종료 된 후 별도의 채

점단에 의해 평가된다. 또한 시험의 내용도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통역 현장에서 다루게 되는 법규, 소송, 재판 관련 내용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의학적 내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기 때문에 법률과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는 법정 통역사가 의료 서비스 현장에서 통역을 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를 선두로 일부 주는 주별 단위로 공인 커뮤니티 통역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몇 개의 주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격 검증을 하는 경우도 있다. 1995년 미국 전역에서 처음 시작된 이러한 법정 통역 컨소시엄은 미네소타, 뉴저지, 오레곤, 워싱턴 주를 출발로 해서 현재는 29개의 주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각 주별 주민들의 언어 구성을 반영하여 캘리포니아 주와는 다른 언어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의료 서비스 전문 커뮤니티 통역사 협회도 발족되었다. 한편 아직도 공식 커뮤니티 통역이 정착되지 못한 곳은 통역 오류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식 자격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3. 통역 교육과 전문성의 관계

3.1 문제가 제기된 미국의 커뮤니티 통역 사례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한 피고는 통역사의 잘못으로 공구를 훔친 경범죄에서 덤프트럭을 훔친 죄목으로 징역 30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⁴⁾ 피고는 모든 법정 절차를 통역사에게만 의존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유죄 답변 협상에서 자신의 공구 절도에 대한 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고는 영어를 못할 뿐 아니라 모국어인 스페인어를 잘 쓸 줄도 몰랐다.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의 이의가 제기되면서 피고가 연루된 사건 이외에도 또 한 편에서 통역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통역사는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피고에게 통역을 하지 않았고 특히 결정적 역할을 하는 피

4) Patricio G. Balona, "Freedom nearly lost in translation," *News Journal Online* (Daytona Beach, Jan. 18, 2006), <http://www.news-journalonline.com> 참조.

고의 유죄 답변 협상 때 덤프트럭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와 피고의 친구는 픽업트럭을 타고 있었고 죄를 인정하면 형 선고 때 참고가 되는 유죄 답변 협상에서 공구 절도에 대해 인정을 하였다. 문제는 같은 트럭이라도 피고가 탄 픽업트럭과 도난당한 덤프트럭과의 상관관계는 분명하게 내용이 전달되지 못한데 있다.

통역 녹음 자료에 의하면 심리에서 통역사는 트럭만을 언급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중요한 트럭 차이와 사건 정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통역사의 자격 조회 결과 해당 통역사는 경험에 의거 통역을 몇 년간 하고 있었고 정식으로 소정의 자격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법정 통역 18일 집중 교육을 받은 것을 해당 교육 경력 대신 사용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만이 법정 통역을 할 수 있고 교육받지 않고 경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재시험과 재교육을 통해 통역 품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이것은 권장사항일 뿐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플로리다 주 법정 통역사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 자문을 담당했던 플로리다 주의 한 공인 법정 통역사는 고용 기준 강화를 논하면서 ‘취미로 하는 통역사’는 자격 미달인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 사례는 교육과 자격 인증 그리고 재교육을 통한 전문 통역사 확보의 중요성을 잘 시사해 준다. 통역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정식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에 오랜 세월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통역 품질과 연결되면 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주최 측의 자의적 해석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미국 몬트레이 통번역대학원의 예가 보여 주듯 경험 많은 통역사라도 2학년에 편입하여 정규 교육과정 수료 자격을 갖추려면 시험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신뢰받는 번역 회사들이 번역하는 사람이 경력과 해당 외국어 국가 체류 경험이 있어도 사전 실력 평가 시험(sample test)을 통해 번역 능력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외국의 커뮤니티 통역 교육에서 주목할 것은 정식 인가를 받은 교육 기관이라도 기관의 수료증이나 학위가 자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해당 공인 자격시험제도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또 관련 통역사들의 공식 협회가 있

을 때에도 그 협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3.2 우리나라 커뮤니티 통역 교육을 위한 제의

커뮤니티 통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통역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정확한 시장 수요에 맞춘 전문 분야별 통역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둘째, 공인 시험 혹은 등록 제도를 통해 공신력 있는 자격 검증 혹은 인증 체제를 구축하며, 셋째,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과 두 번째 자격 검증 제도의 운영이 서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것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앞에서 살펴 본 미국 사례와 비교할 때 전체 인구는 물론 인구 대비 이민자의 수가 많지 않아서 법정과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커뮤니티 통역 수요가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창출될 수 없다. 더구나 통역 수요가 개인이나 기업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 커뮤니티 통역 수요를 공식적 수치로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제 3국 노동자 이주와 국제결혼 증가로 조금씩 법정 통역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법정 관련 통역사 수급은 수요가 발생할 때 마다 대학교 추천으로 마련된 인력 알선 자료나 외국어 관련 대학의 협조를 받아 충당한다. 법원에서는 통역과 번역을 구분하여 지원 희망자를 받고 통·번역사 명단을 만든 다음 수요가 발생할 때 이 명단의 인력을 활용하고 만일 필요한 외국어 인력이 없을 때는 대학에서 통역사를 추천 받아 활용한다. 대법원 규정,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 2장 7조에 따르면 법정 통역사는 ‘통역 경력과 성실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에게 한 해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력과 성실성이라는 선정 기준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공정한 잣대로 활용할 수 없고 또한 실제로 재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역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행사나 모임에서 비중 있는 통역, 예를 들면 수행통역을 제외한 순차와 동시통역만을 인정하고 또 경력 증명서 뿐 아니라 실제 경력을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성실성이라는 것은 어느 직업이나 통용되는 기본적 가치일 뿐 증빙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애매한 기준이다.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나 전문성이 보완되지 않는 근

본적인 이유는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통·번역사 선정과 교육이 법원 관계자의 본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에 있다.

그렇다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역 교육은 국제회의 통역도 아니고 커뮤니티 통역도 아닌 막연한 국제 언어 인력만을 양산하게 된다. 결국 전문 직종이어야 할 통역이 부차적 수입원이 되는 비전문직(odd job)이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자칭 통역사만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커뮤니티 통역의 사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통역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비국제회의 통역 교육은 첫째, 기본적인 커뮤니티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법정과 병원 및 보건소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고정적 시장 수요가 있는 틈새시장을 찾아 그 분야의 통역사를 육성하는 것이 대안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학부의 통번역 교육과정이 통상이나 IT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통역 교육을 접목하고 있는 추세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교과 과정은 물론 학습자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은 가운데 어학 교육과 통역 활용 취업이라는 두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통역 시장 거품을 조심스럽게 논하고 있는 요즘 ‘국제’에 치중한 통역보다는 ‘전문화’된 통역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둘째, 기본적인 전문 통역 교육을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과 차별화하기 위해 회화나 듣기 위주 교육이 아니라 기본적인 최소한의 전문 통역 기술, 예를 들면, 노트 테이킹, 문장구역을 가르치고 실제 통역 훈련을 병행하면서 교재 내용에 특화 부분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분야든 교육 이수자 곧 자격증 취득 내지 전문 분야에 바로 투입되어 활동할 수 있는 인증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자격증 제도가 없거나 혹은 정식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활동하는 통역사의 경우는 통역사 자질과 능력을 재검증하고, 재교육하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대법원 규정.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재판예규 제 994호.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 Baker, Mona. (ed.).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lona, Patricio G. “Freedom nearly lost in translation”. *News Journal Online* (Daytona Beach, Jan. 18, 2006). <http://www.news-journalonline.com>
- Gonzalez, Vasquez and Holly Mikkelson, 1991. *Fundamentals of Court Interpretation: Theory, Policy and Practice*.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 Gentile, A. 1997. "Community Interpreting or Not? Practices, Standards and Accreditation". S. Carr, R. Roberts, A. Dufour and D. Steyn (eds.). *The Critical Link: Interpreters in the Community*. 117-118.
- Green Paper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Department of Justice and Home Affairs. “Procedural Safeguards for Suspects and Defendants in Criminal Proceedings throughout the European Union”. Brussels (Feb.19, 2003). http://ec.europa.eu/justice_home/doc_centre/criminal/doc_criminal_procedural_en.htm
- Higgins, Marguerite. “Open to Interpretation”. *The Washington Times*. (June 12, 2005). <http://www.washingtontimes.com>
- "ICCA Statistics 2005".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http://www.iccaworld.org>
- Jane, Shackman. 1984. *The Right to be Understood: A Handbook on Working With, Employing and Training Community Interpreters*. Cambridge, England: National Extension College.

[Abstract]

Professionalism of Interpretation from Community Interpreting Perspective

Ryu, Hyunju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we should address to acknowledge interpretation as a professional language service with an example of community interpreting in the US. Community interpretation is a public service allowing people who don't speak the language of the community to fully enjoy equal benefits in medical, legal and educational services. Therefore, community interpreters are required to be certified through formal training or approval of community interpreters association coupled with refreshing courses to provide quality service. A great majority of the interpreters work in a hospital or in legal settings such as an administrative hearing or/and a court.

Professional community interpreting is well established in a multi-racial, multi-cultural and multi-lingual country like the US, but it is not a familiar term and is usually considered a synonym of unprofessional services provided by a self-acclaimed interpreter with foreign language knowledge. This erroneous concept is widening the demarcation between non-conference and conference interpretation.

With a growing demand in language related services, an increasing number of private and public education providers have launched interpretation programs using the catchphrase of nurturing global language talents. Some are already expressing concerns about a bubble in the interpreting market. Community interpreting reveals what really matters for interpretation professionalism: the education goal and course designs based on a target interpretation market.

▶Key Words: community interpreting, court interpreting, public service interpreting, liaison interpreting, conference interpreting

류현주

부산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

ju2k@pufs.ac.kr

관심분야: 통역·번역학, 비평이론

논문투고일: 2006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06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6년 6월 10일

K C I